

# 한국원자력학회 제32대 수석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 □ 인적사항



성명	하재주
소속/직위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 □ 학력사항 (최종학력사항만 기재)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오하이오 주립대	원자력공학	박사	1992

## □ 경력사항 (대표경력 5개 이내)

기간	근무처	부서/직위	담당업무
2017.3-2018.11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기관경영
2015.3-2017.3	OECD/NEA	원자력개발국장	원자력정책
2007.4-2014.2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 신형원자로개발 연구소장 등	
1999-2007.3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안전평가부장	

## □ 활동 내역

### 1. 한국원자력학회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05.9-2007.8	사업이사	
2007.1-2010.8	원자력열수력 및 안전연구부회장	
2005.9-2018.11	평의원	

### 2. 기타 활동 내역 (3개 이내)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8-현재	한국공학한림원	
2003.9-2005.9	원자력안전위원회	계통분과위원
2015-2018	IAEA SAGNE 멤버	

과거 원자력기술 불모지 시절에는 하나라도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으로 기술을 축적하여 원전을 자력으로 설계.건설.운영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여 산업 활동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요르단과 UAE에 수출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원자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미국NRC로부터 APR1400 설계의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 모두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원자력을 국가적으로 진흥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일한 서방세계의 대항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나라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완벽한 에너지란 물론 없으며 모든 에너지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미세먼지, 경제성, 산업효과, 환경보존 등 다양한 면에서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단.중.장기적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기 공급을 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탈원전이라는 정치적인 결정 하에 에너지정책을 세우면서 여러 난제들에 대한 해법의 선택지가 좁아져서 정책이 왜곡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학회는 학술단체이므로 당연히 원자력과 방사선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의 진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관련 산업 뿐 아니라 학문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원자력에 대한 팩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원자력의 가치를 바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잡고, 산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전문가집단인 원자력학회가 그 일을 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기반을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 얼마나 힘든가는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그 실례를 봅니다.

그동안 전임 회장, 임원 및 회원들과 많은 뜻있는 분들이 헌신한 덕분에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형성되었습니다만 이 공감대가 결실을 보려면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노력이 예상됩니다.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는데 이 길을 굳이 왜 가려 하는가 하고 여러 번 반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OECD/NEA를 포함해서 평생 원자력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인 줄 알면서도 KAERI 원장 역을 마다하지 않았듯이 마음속에 늘 원자력인으로서의 사명감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적인 직이 없기에 오히려 더욱 자유로워진 것도 결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하면 원자력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는데 남은 에너지를 쏟을까 합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5. 8

성명 : 하 재 주 (서명)

